

## VII. 메대인 다리오로서의 아스티아게스<sup>1)</sup>

학자들이 메대인 다리오를 고레스의 바빌론 포로와 관계된 누군가와 동일시 해왔기 때문에, 메대인 다리오의 실제 정체를 놓쳤다고 믿는다. 다니엘서가 벨사살이나 심지어 느부갓네살보다도 메대인 다리오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려준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는 이 책에서 그 나이와 부모와 국적이 기록되었던 유일한 군주이다. 이렇게 고려하면 메대인 다리오의 역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다.

### 1) 그의 배경이 미디어의 역사와 일치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다리오'라는 용어는 단순히 '왕'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인다.<sup>2)</sup> 윌리엄 올브라이트(William F. Albright)는 "다리오"라는 이름은 아마도 옛 이란의 왕실의 칭호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sup>47</sup> 그러므로 '메대인 다리오'라는 표현은 탁월한 미디어 왕을 언급한다.

다니엘서에서 간주하는 다리오의 국적은 초기 미디어-페르시아 역사에서 알려진 것과 명확하게 완전히 일치한다. 헤로도투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다리오의 왕들을 기록한다. 그리스 역사가는 미디어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도표3. 헤로도투스가 정한 미디어의 군주들과 그들의 통치

군주(Monarch)	전체통치기간	주전 연대
데이오케스(키아크사레스-Cyaxares)	53 years	690 B.C.-637 B.C.
데이오케스(Deioces)의 아들 파오르테스(Phaortes)	22 years	637 B.C.-615 B.C.
파오르테스의 아들 키아크사레스(Cyaxares)	40 years	615 B.C.-575 B.C.
키아크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Astyages)	35 years	575 B.C.-540 B.C.

군주들의 전체 통치의 합계는 150년이다. 헤로도투스는 그 합계를 128년으로 정하지만(Herodotus 1:130), 그가 둘째 왕인 파오르테스를 잊어버리고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오도루스 시쿨루스는 상세하게 적지 않았는데도 150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의 도서관(The Library of History)에서 미디어의 왕들을 각

1) 유진 폴스티히,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서문 참조

2) '다리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리야웨쉬, 약카드어와 엘람어로 다리야위스, 고대 페르시아어로 다라야바우스, 그리고 그리스어로 다레이오스로 나타난다. 이 단어는 젠따라에서 유래되었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다리오'라는 칭호가 이집트어 '파라오', 로마어 '카이자르' 그리고 러시아어 '차르'와 유사한 미디어-페르시아 용어임을 의미할 수 있고, 그저 단순히 '왕'을 의미한다.

기 20년 이전으로 잡았던 것 같다.

메디아의 첫째 왕은 데이오케스(Deioces)였고, 그는 아시리아인들이 아시아를 520년(Herodotus I,95) 혹은 500년(Diodorus, The Library of History II.32.) 동안 통치한 후에 그것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는 네 세대의 왕조의 창시자였고 53년 동안 다스렸다.(Herodotus I. 102).

파오르테스는 메디아의 둘째 왕이고, 데이오케스의 아들이며 22년 동안 다스렸다(Herodotus I.102).

메디아의 셋째 왕은 키아크사레스이고 파오르테스의 아들이며 메디아를 40년 동안 다스렸다(Herodotus I.107). 그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정복을 도왔던 메디아 왕이었다(주전 615년-주전 613년).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스키티아인인 알리앗테스가 28년 동안 메디아 제국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 시기는 일식의 때에 끝났다.<sup>48</sup> 이 일식(주전 585년)은 뒤에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키아크사레스의 아들인 아스티아게스는 메디아 군주의 순서에서 마지막이었다. 그의 통치는 고레스까지 계속되었다(Herodotus I.130)

메디아 군주들의 주전 연대에 따르면, 다니엘의 예언의 연대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아스티아게스이다. 그는 메대인 다리오이다. 메디아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헤로도투스가 진술하기 때문에, 과거에 학자들 중에는 그와 메대인 다리오를 동일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sup>49</sup> 따라서 메대인 다리오의 배경은 메디아의 역사와 일치한다.

## 2) 다니엘서 6:28과 일치하는 그와 고레스의 관계.

조부와 손자로서 아스티아게스와 고레스의 관계는 다니엘서와 일치하고, 메대인 다리오가 페르시아인 고레스에 앞선다(단 6:28)는 생각과 일치한다. 헤로도투스는 고레스의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기술한다(Herodotus I.107-130). 헤로도투스는 아스티아게스와 고레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만다네(Mandane)라고 불렀다. ...[그리고] 캄비세스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인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가 알기로 좋은 집안사람으로 조용한 기질의 사람이었고, 아스티아게스는 캄비세스를 중간 계급의 메대인보다 훨씬 낮게 여겼다.

그런데 만다네가 캄비세스에게 결혼한 첫 해에 고레스의 출생이 [있었다]...(Herodotus I.107-108)50

크세노폰은 또한 아스티아게스와 고레스가 같은 관계라고 말한다.

고레스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인들의 왕인 캄비세스라고 말하고, 이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계열에 속했고, 페르시아는 그 이름이 페르세우스에서 유래한다. 그의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기로는 만다네였고, 이 만다네는 한 때 메대인들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 날에 이르기까지도 야만족들은 이야기와 노래로 고레스가 가장 인물이 잘생기고 마음이 가장 너그럽고 학문에 가장 골몰하고 가장 야심적이어서, 칭찬을 위해 온갖 노고를 참고 어떠한 위험에도 맞섰다고 말한다. (Cyropaedia I.ii.1)

70인 역의 다니엘서에 대한 부록인 '벨과 용'의 이야기에서 진술하기를,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를 계승했다." (다니엘서 14:1, 예루살렘 바이블). 그러므로 헤로도투스(Hisories I.108)와 크세노폰(Cyropaedia I.ii.1)에 따르면, 고레스는 그 부계 조상이 페르시아인이었고, 그의 모계 측으로는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다.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스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다.



다리오의 통치의 연대기(아스티아게스)뿐만 아니라 메대인 다리오와 고레스 대왕의 관계 또한 다니엘서와 일치한다. 이 요인들이 메대인 다리오가 왕국을 접수했던 주전 575년과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주전 540년 사이에 35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의 집에서 그의 마지막 11년을 살

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생각되었다.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후 고레스는 바빌론을 함락시켰다. 헤로도투스가 아스티아게스의 통치의 전체 기간을 말하기를, “따라서 아스티아게스는 35년의 통치 후에 그 주권에서 퇴위하였고, 메디아인들은 아스티아게스의 잔학성을 이유로 페르시아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Herodotus I.130). 아스티아게스를 퇴위시킨 고레스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아스티아게스의 실제 퇴위는 주전 551년에 일어났다.

### 3) 다니엘서와 일치하는 그와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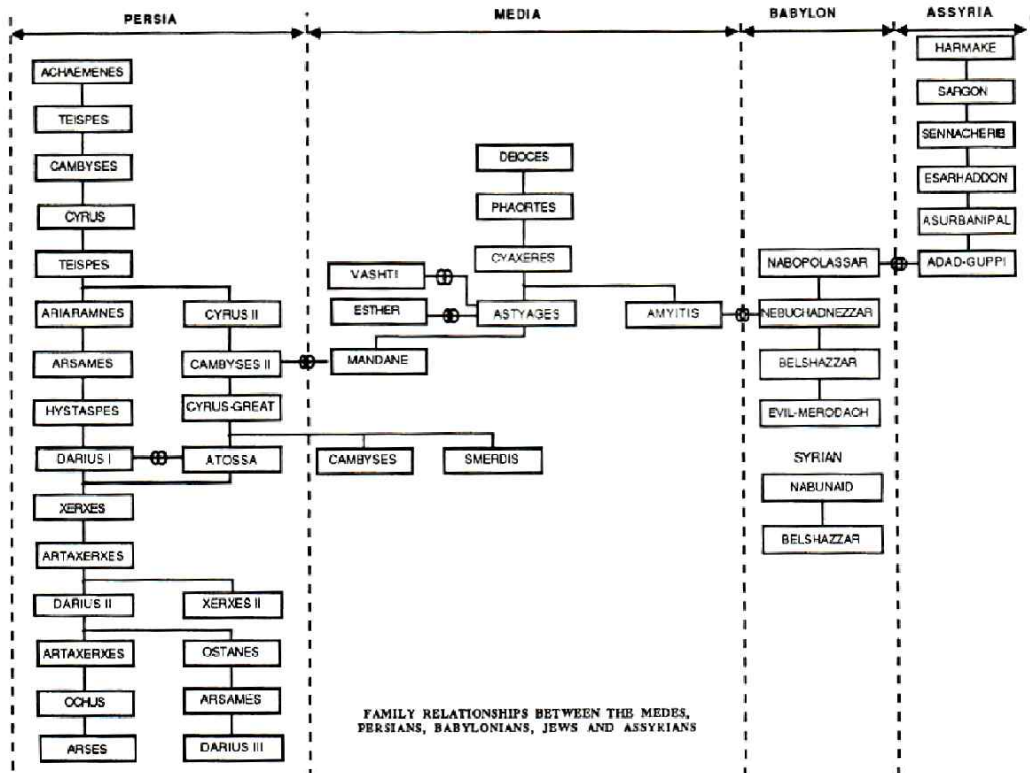
느부갓네살과 메대인 다리오(아스티아게스) 사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랏살과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인 키아크사레스 사이의 동맹의 결과로 왔다. 이 동맹은 아비데누스와 유세비우스 모두의 글에서 발견된다. 조지 로우린슨은 이 동맹의 배경을 말해준다.

메대인들이 처음으로 아시리아를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수도를 포위하여 위협했을 때, 바빌로니아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그 동맹을 지켰다. ...

이 곤경에서 아시리아 왕은 그의 군대를 나누어 일부는 남쪽에서 진군해 오던 적[수사니아인들 아니면 바빌론인들로만 구성되었거나, 혹은 둘이 결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군대]에게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를 가지고 그 자신은 메대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첫째 임무를 위해 분리된 군대를 어떤 나보폴랏살(나부-팔-우추르)의 지휘 아래 두었는데, 그는 아마도 아시리아의 높은 계급과 알려진 역량을 가진 귀족이었을 것이다. 나보폴랏살은 아마도 총독이 되어 바빌론으로 나아가 반역자들로부터 남부의 수도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바빌론에 들어가 그 직위에 취임하기까지 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 그의 주권자와의 신의를 깨고, 아시리아의 파멸된 권력 위에 스스로 독립된 나라를 획득할 목적으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 결심이 선 후에, 그의 첫 걸음은 키아크사레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제안하는 한편,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느부갓네살과 메디아 군주의 딸인 아무히아 혹은 아미이티스(둘 다 쓰이는 이름)와의 결혼을 정하였다. 키아크사레스는 제안된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젊은이들은 약혼했다. 그리고 나보폴랏살은 즉시 파견부대를 인도하거나 보내어 메대인들과 합세시켰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아시리아의 수도를 크게 포위해서 결국 함락시키고 파괴하였다.<sup>51</sup>

느부갓네살과 아미이티스의 결혼으로 아스티아게스는 느부갓네살의 처남이 되었다. 다음의 도표 5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과 바빌로니아인과 유대인과 아시리아인들 사이의 가족 관계를 보여준다.

#### 도표 4. 가계 인맥도



**4) 이 인물은 메대인 다리오에 대한 다니엘서의 연대와 일치한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자신의 궁정 경비대에 의해 주전 574년 살해된 후, 메대인(단 6:1) 다리오(아스티아게스-랍비들에 따르면 고레스 전에 통치함)가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아미이티스(Amyitis)로부터 받았고, 느부갓네살이 광기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스리도록 요청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다니엘 5:30-31이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아마도 에빌-메로다츠(Evil-Merodach)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였고 이때에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렸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렘 27:7). 그는 12년 후 주전 563년 느부갓네살이 죽자 다스린다. 에빌-메로다츠가 너무 어렸다면, 아스티아게스가 주전 574년 바빌론을 다스릴 후보자였을 것이다. 신중한 검토에 의해 고레스가 벨사살의 8촌이었고 느부갓네살이 고레스의 종조부였음이 드러났다.

**5) 그는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었다 (단 9:1)**

아스티아게스가 바빌론을 평화롭게 받았다는 데 주목하는데, 다니엘의 예언이 그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단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주전 575년 이 해는 또한 아스티아게스가 메디아를 다스린 첫 해였다.

제롬이 그의 다니엘 주석에서 다리오의 신원에 관해 쓰기를, “이 다리오가 그리스 문헌에서 언급되는 그 아스티아게스라고 생각하는 권위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고 야만인들 사이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생각한다.”<sup>52</sup> 크세노폰이 낭만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키아크사레스 2세에 대한 크세노폰의 이야기는 허구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헤로도투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남성 계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한다(1.109).

#### **6) 바빌론의 왕위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다니엘은 또한 다리오(아스티아게스)가 바빌론 나라를 받았을 때 62세였다고 진술한다 (단 5:31). 아스티아게스의 나이 계산은 아주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아버지인 키아크사레스 1세가 40년 동안 메디아를 다스렸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아버지가 주전 615년 메디아의 왕좌에 올랐을 때 22세였다. 아스티아게스는 주전 575년에 메디아의 왕위를 받았고, 바빌론의 왕좌는 주전 574년, 그가 62세였을 때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출생 연대는 주전 636년에 일어났다. 24년 동안 메디아를 다스리고 나서(주전 575-주전 551년), 아스티아게스는 86세에 고레스에 의해 퇴위하였지만, 고레스와 함께 살았고 그 후 11년 동안 바빌론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인다. 고레스는 주전 540년에 바빌론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아스티아게스는 31세였다.

#### **7)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을 대신했다 (단 5:1-31)**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아니었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네 번이나 단 5:2, 11, 13, 18에서, 그 관계를 입증하는 대명사를 달리하여(그의, 너의, 나의) 부르고 있다. 단 5:22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바빌론 역사의 두 벨사살이 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만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의 보위를 찬탈했는데도, 다니엘서의 저자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이상한 것 같다. 현무암 석주에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의 권좌에 오른 것을 기록하기를,

(그의)[네리그릿사] 날들이 차고 그가 (인간) 운명의 여행을 떠난 후, 어떻게 행동

하는지도 배우지 못한 미성년의 그의 아들이 신들과 (세 줄이 빠져있음) 의 의도를 거역하여 왕좌에 앉았다.

그들이 나를 궁정으로 인도하여 들이고 모두 내 발 앞에 엎드려 내 발에 입 맞추고 왕으로서 계속해서 절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 마르둑의 명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등극했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었고, 나와 겨룰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선왕인 느부갓네살과 네리그릿사의 뜻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이다. 그의 군대가 나에게 의탁되었고, 그들의 명령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애써) 기쁘게 한다(즉 그들의 계획을 시행한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벨-마르둑과 네리그릿사의 아들 라바쉬-마르둑이 그들의 [부대]와 ...을 [소집하였고] ...그들의 ...그들은 해산했다. 그들의 명령은(7-8줄이 빠져있음).<sup>53</sup>

나보니두스가 찬탈자였다고 실제로 증명할 글줄은 필시 나보니두스 자신에 의해 삭제되거나 파괴되었다. 드라이버(S. R. Driver)는 나보니두스가 찬탈자였기 때문에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다고 단언한다. 드라이버는 쓰기를, "벨사살이 바빌론의 왕으로 나타나고, 약 5 번에 걸쳐(2, 11, 13, 18, 22절) 느부갓네살과 무관한 찬탈자였고, 한 벨사루출이 그의 아들로 언급되나."<sup>54</sup> "고대의 용법으로 아들이라는 용어는 혈연 관계가 있든 없든 동일한 직위의 계승자를 종종 가르킨다"<sup>55</sup>는 글리슨 아처(Gleason L. Archer, Jr)의 제안은 셈어인 '아들'의 오용으로 보인다. 한 단어가 반드시 다른 의미를 취하여야 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그 일상적 의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한 강력한 증거가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섭정하였고, 그의 아버지에게 광기가 생긴 첫 삼년 동안 바빌론을 다스렸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단 5:16, 29)의 지위를 제의했던 이유이다.

벨사살의 죽음(단 5장)이 고레스의 바빌론 함락과 종종 연결되기 때문에, 벨사살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학자들이 가정한다. 그렇지만 다니엘서의 연대기 자료는 메대인 다리오의 원년부터(주전 574년, 단 6:1-3) 고레스의 3년(주전 549년, 단 10:1)까지가 25년(주전 574년 + 25 = 주전 549년)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 기간은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12년과 에빌-메로다츠의 2년과 네리그릿살의 4년과 라바쉬-마르둑의 9개월과 나부나이드(나보니두스)의 9년을 합한 것이다. 이 시기가 단 6:28에서 지시되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아스티아게스)의 통치 기간은 주전 575년-주전 540년이고, 고레스의 통치는 주전 551년-주전 531년에 이른다.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은 연대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 3년, 즉 주전 549

년 (히브리력)이다. 만약 다니엘이 주전 599년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을 때 20세였다면, 그가 큰 강 히데켈에서 마지막 환상을 받았을 때 70 세이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 8) 그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단 9:1)

단 9:1은 메대인 다리오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고 확인한다.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는 주전 613년 나보포랏살을 도와 바빌론을 전복한 고레스였다. 메대의 키아크사레스 왕이 단 9:1의 '아하수에로'이다.

페르시아어 크샤야르샤(khshayarsha)의 히브리어 동격이 되는 '아하수에로 (Ahasuerus)'라는 용어가 단순히 '강력한 사람', 즉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흥미롭게 주목한다. 그리스 이름 아수에로스가 외경 토비트서에 보존되어있다. 이름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는데, 고유명사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고, 단지 메디아 군주(들)의 칭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토비트서에 '아하수에로'라는 칭호가 그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에서 그 칭호는 키아크사레스 1세를 가리킨다.

그 후 토비아의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에 합장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메대로 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함께 살았다. 토비아는 늙은 장모를 잘 모시다가 메대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물었다. 이리하여 토비아는 자기 아버지 토비트의 재산뿐 아니라 라구엘의 집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토비아는 백십 칠 세를 일기로 영광스러운 그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죽기에 앞서 니스웨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메대의 왕 아하수에로스가 사로잡은 포로들이 메대로 끌려 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니스웨와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스웨가 당한 운명을 생각하여 기뻐하였으며 영원히 살아계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sup>56</sup>

이 아하스에로스가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 키아크사레스 1세이다. 토비트서의 이 예로 보아 **아하수에로스**는 **왕의 고유 이름이기보다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

메대인 다리오 혹은 아스티아게스가 그의 아버지 키아크사레스 1세가 사용했던 동일한 칭호 (이것을 앞으로 보여 줄 것이다), 곧 토비트 서의 저자(14:15)와 다니엘의 저자(9:1)가 모두 키아크사레스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던 칭호를 사용했으리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엘렌 라냐드(L. N. R. Ellen Ranyard)는 외치는 돌들(Stones Crying Out)에서 키아크사레스가 첫 아하수에로스이었다고 진술한다.

느부갓네살을 도와 니스웨를 마침내 멸망시킨 것은 메대의 왕 키아크사레스였다. 그는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첫 아하수에로이자 메대인 다리오의 아버지이고(단 9:1),



(다리오는: 승원삽입) 아스티아게스라고도 불렀는데, 그 (다리오 또는 아스티아게스: 승원삽입)의 딸인 만다나가 고귀한 페르시아인 캄비세스와 결혼했고, 고레스의 어머니가 되었다.<sup>57</sup>

## 9) 메대인 다리오의 역사성

다니엘서는 메대인 다리오에 관해 그가 바빌론을 점령했을 때 62세였고 (단 6:1), 그리고 메대인의 씨를 받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 (단 9:1)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해준다. 불행하게도 세속사는 바빌론과 메디아의 기록 가운데 이 다리오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왕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스포트키는 다른 확인에 주목했다.

그가 고레스에 의해 정복된 아스티아게스나, 딸이 그 왕과 결혼한 키아크사레스나, 캄비세스나, 구바루나, 그 주인의 이름으로 바빌론에 실제로 입성해서 나중에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던 고레스 상관대리라고 추정할 수도 있었겠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다리오 1세가 알려지지 않은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메대인으로 통했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되었다.<sup>58</sup>